

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

2009년 6월 둘째주

음악산업 주간동향 리포트



한국콘텐츠진흥원

What's Happening in Music Industry? [2009년 6월 둘째주]

6월 둘째주 음악산업 동향

- 2조원 중국음악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국내 음악업계의 힘찬 행보 : 이효리와 JYP 엔터테인먼트
- 게임만으로도 전설의 비틀즈 무대를 누비며 비틀즈가 되어 보는 놀라운 경험 [비틀즈:락밴드] 게임 발표

콘텐츠 목차

1. 소비자 동향

- 1-1. 2009년 5월 3주차 음원 판매 현황

2. 산업 동향

- 2-1. 청소년 보호위원회, 5월 청소년 유해매체로 49곡 판정
- 2-2. 방송 i3사, '저작권 침해 중지' 내용 증명 발송
- 2-3. 음반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, '지적재산권' 수입 증가
- 2-4. 이효리, 현대차 중국 모델로 중국 진출
- 2-5. JYP 엔터테인먼트, 중국 음악 시장 진출 가속
- 2-6. 日 MTV VMAJ 2009에 보아와 빅뱅 출연

3. 기술 동향

- 3-1. 최초로 게임으로 만나는 비틀즈 [The Beatles : Rock Band]
- 3-2. 공연산업 인터넷 커뮤니티 아티스트 라이즈(Artist Rise) 오픈
- 3-3. 소니뮤직, 유튜브·유니버설 뮤직의 합작 뮤직비디오 사이트 베보(Vevo) 참여

4. 정책 동향

- 4-1. 음반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
- 4-2. 제2회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
- 4-3. 방송통신위원회 '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' 마련

5. 해외 동향

- 5-1. 스페인 음악 산업, 음악 불법 다운로드 성행으로 시장규모 감소 위기
- 5-2. 음원 파일 불법 공유, 반대와 찬성의 격렬한 대립
- 5-3. 소니뮤직, eMusic 에 고전명곡 음원 제공

※ 관련 기사 및 자료 목록

1 소비자 동향

1-1. 2009년 5월 4주차 음원 판매 현황

순위	멜론 (5.24~5.30)		엠넷(5.25~5.30)		도시락(5.25~5.30)		벅스(5.21~5.27)	
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
1	-	Fire - 2NE1	↑1	너라고-슈퍼주니어	-	Fire - 2NE1	진입	사랑이 죄인가요 - 백지영
2	-	Again&Again - 2PM	↓1	Fire - 2NE1	-	너라고-슈퍼주니어	↑39	기억과 추억 - 김태우
3	-	여성시대 - 씨야,다비치,티아라	↑1	Again&Again - 2PM	-	여성시대 - 씨야,다비치,티아라	↓2	여성시대 - 씨야,다비치,티아라
4	-	My Man - 다비치	↓1	여성시대 - 씨야,다비치,티아라	↑1	줄리엣 - 샤이니	↓2	Fire - 2NE1
5	-	Lollipop - 빅뱅&2NE1	-	줄리엣 - 샤이니	↓1	Again&Again - 2PM	↓2	너라고-슈퍼주니어
6	↑4	너라고 - 슈퍼주니어	↑27	사랑이 죄인가요 - 백지영	↑7	기억과 추억 - 김태우	↑20	줄리엣 - 샤이니
7	↓1	눈물이 똑똑 - 케이윌	↑7	기억과 추억 - 김태우	↓1	My Man - 다비치	↓3	Again&Again - 2PM
8	-	Diva - 애프터스쿨	↓1	소리,소리 - 슈퍼주니어	↓1	사랑해 - SG Wannabe	↑100	Twilight 영원토록 - Gavy NJ(희영)
9	↓2	소리,소리 - 슈퍼주니어	진입	큰일이다 - VOS	↓1	흔들려 - 채연	↑100	잊은 만큼 후회해 - 김범수
10	↓1	토요일밤에 - 손담비	↓4	My Man - 다비치	-	Diva - 애프터스쿨	↓5	좋아해 - 요조,김진표
11	↑1	사랑해 - SG Wannabe	↓3	사랑해 - SG Wannabe	↑39	여자는 그래 - 김동희	↓5	흔들려 - 채연
12	↓1	심장이 없어 - 에이트	↓3	Diva - 애프터스쿨	↓3	Lollipop - 빅뱅&2NE1	진입	Dream Girl - 애프터스쿨
13	-	사고쳤어요 - 다비치	↑87	Dream Girl - 애프터스쿨	↑6	잊은 만큼 후회해 - 김범수	↓5	영원한 사랑 - 씨야,다비치,티아라
14	↑3	Boo - 아이유	↓4	눈물이 똑똑 - 케이윌	↓2	눈물이 똑똑 - 케이윌	↓5	사랑해 - SG Wannabe
15	-	터질 것 같아 - 지아	↓2	흔들려 - 채연	↑38	Dream Girl - 애프터스쿨	↓8	I Miss You - 테이
16	↑16	기억과 추억 - 김태우	↓5	Lollipop - 빅뱅&2NE1	-	Boo - 아이유	진입	여자는 그래 - 김동희
17	↓3	8282 - 다비치	↓5	내사랑 울보 - SG Wannabe	↓6	소리,소리 - 슈퍼주니어	↓7	손톱이 빠져서 - 이승철
18	↑1	마음이 다쳐서 - 나비	↓2	Boo - 아이유	진입	큰일이다 - VOS	↓6	My Man - 다비치
19	↑1	내사랑 울보 - SG Wannabe	↓4	토요일밤에 - 손담비	↓4	토요일밤에 - 손담비	↑136	Play - SS501
20	↓4	친구의 고백 - 2AM	↑29	Twilight 영원토록 - Gavy NJ(희영)	↓6	영원한 사랑 - 씨야,다비치,티아라	↓5	Diva - 애프터스쿨

(멜론, 도시락, 벅스, 엠넷의 '09.5월 4주차 스트리밍 기준)

- 22일 공개된 백지영의 '사랑이 죄인가요' 는 발매 직후 빅스 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모음
 - 지난해 말 인기를 모았던 '총 맞은 것처럼'의 작곡가 방시혁과 다시 작업한 곡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으며,
 - SBS 월화드라마 '자명고' OST에 삽입, 드라마의 인기를 뛰어넘는 주목을 받음
 - 현재 대응할 만한 여성 발라드 가수가 없다는 점과 빅스 외 다른 차트에서도 순위가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차트에 오래 머무를 것으로 예상
- 5위권 내 아티스트는 빅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일하여 차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
 - 2NE1의 Fire, 슈퍼주니어의 너라고, 씨야,다비치,티아라의 여성시대, 2PM의 Again & Again, 샤이니의 줄리엣이 전주와 비교하여 큰 변동 없이 상위권 유지
- 댄스가 인기 있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애절한 남성 가수의 발라드가 인기
 - 5/27일 발매한 남성 3인조 그룹 V.O.S.의 신곡 '큰일이다'는 발매 첫주 엠넷차트 9위, 도시락 차트 18위에 진입 (두 차트 집계기간이 5/25~30일인 점을 감안할 때 가파른 상승세임)
 - 김태우의 신보 '기억과 추억'은 지속적으로 순위 상승하며 상위권에 머물고 있음
 - 이외에도 김범수의 '잊은만큼 후회해'(빅스차트 8위, 전주대비 100위 상승), 테이의 'Miss You', 케이윌의 '눈물이 똑똑', 이승철의 '손톱이 빠져서' 등 애절한 남성 발라드가 차트 20위권 곳곳에 자리하고 있음
 - V.O.S.의 '큰일이다', 김태우의 '기억과 추억', 김범수의 '잊은만큼 후회해' 등은 별다른 방송 활동 없이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'여름=댄스' 라는 가요계의 통념을 뛰어넘음
- 애프터스쿨, 김동희, 아이유 등 신인 여가수들의 선전이 돋보임
 - 2009.1월 'Ah'로 데뷔한 애프터스쿨은 섹시 컨셉 가수들과 큰 차이점이 없어 데뷔 초반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두 번째 싱글 'Diva'와 엠넷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 '대동경소녀'의 삽입곡 Dream Girls를 동시에 차트 20위권에 올리며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음
 - 특히 두 번째 싱글 Diva는 4월 발매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차트 상위권을 유지
 - 5/21일 발매된 신인 가수 김동희의 첫 번째 정규앨범 수록곡 '여자는 그래...'는 도시락 차트 11위, 빅스차트 16위를 차지하며 인기
 - 김동희의 뮤직비디오에 인기 아이돌그룹 SS501의 멤버 김규종이 출연하며 화제를 모음
 - 여고생 가수로 알려진 아이유의 Boo도 꾸준히 인기를 모으며 차트 20위권에 머물고 있음

2 산업 동향

2-1. 청소년 보호위원회, 5월 청소년 유해매체로 49곡 판정

-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, 5월 음반심의 진행 결과 고시 (5/28, 홈페이지)
 - 에픽하이, 업타운, 김성수 등의 신보 곡을 포함하여 총 49곡을 유해매체로 판정
 - 2009.3월에는 61개, 4월에는 58개의 곡을 청소년유해매체로 판정한 바 있음

표. 2009.5월 유해매체 판정 주요 아티스트 및 사유

아티스트명	앨범명 / 곡명	사유
에픽하이	맵 더 소울 / '8 by 8, part 2'	비속어 사용
업타운	정규6집 / 다줄게, 렛츠갯인온	선정적 표현
김성수	더 F4 스토리 / 말랑말랑	술-담배 표현

- 유해 매체 선정 시 방송 제한 및 스티커 부착 등 제재 (6/5일부터)
 - 유해 매체로 선정된 곡이 포함된 음반은 19세 미만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
 - 청소년보호시간대인 평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, 주말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든 방송매체에서의 방송 금지
- 그러나 최근 동방신기 4집의 '미로틱'에 대한 유해매체 판정 가처분 소송에서 법정은 동방신기의 손을 들어준 바 있음
 - 특히 이번 5월 선정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3월 발매 음반들이 다수
 - 이후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에 대한 아티스트와의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

2-2. 방송 3사, '저작권 침해 중지' 내용 증명 발송

- KBS인터넷, iMBC, SBSi(이하 방송 3사)는 79개 웹하드 및 P2P,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KBS, MBC, SBS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'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적극적인 보호 조치'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발송 (5/28일)
 - 지난해 영화인협회가 고소한 (주)나우콤(피디박스·클럽박스)을 비롯해 (주)이지원(위디스크), (주)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(엔디스크), (주)아이서브(폴더플러스), (주)케이티하이텔(아이디스크), (주)와이즈휴먼네트웍스(엠포일), (주)유즈인터랙티브(와와디스크) 등 웹하드·P2P업체들과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(싸이월드·네이트), 동영상 이용자제작콘텐츠(UCC) 사이트 (주)엠군미디어(엠군) 등이 포함
- 이러한 방송 3사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방지 요청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
 - 2006.10월, 방송 3사는 65개 웹하드·P2P·포털·이동통신사 업체에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

- 2007.2월에는 38개 업체, 2008.1월 7개 포털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지 경고장을 발송
- 2008.5월, 판도라TV와 프리챌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2009.4월 서울중앙지법이 두 업체 사장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
- 6/15일까지 웹하드, P2P 업체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
- 방송 3사는 이번 내용증명 발송을 기점으로 방송저작권 보호에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OSP(Online Service Provider)업체들에 대하여 대규모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
- 방송저작물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상도 함께 병행할 예정

2-3. 음반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, '지적재산권' 수입 증가

-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트는 음악에 대해서도 저작권자 뿐 아니라 가수와 음반제작자에게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'공연보상청구권'으로 음반업계 수입 증가
 - 지난해 전 세계 음반 판매량 8% 감소하였으나 술집이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'공연권' 로열티 수입은 16%증가
 -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(2009.2월)
 - 영국, 프랑스 등 총 123개국이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
 - 이탈리아에서는 2009.3월부터 레스토랑과 술집마다 음악 사용료를 내도록 법으로 의무화
 - 미국은 현재 저작권료를 과금하지 않고 있는 라디오 음악 방송에 대해 법으로 라디오 방송사가 음악을 재생할 경우 음반 회사와 가수에게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
- ※ 공연보상청구권 :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저작인접권자들이 음반 판매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

2-4. 이효리, 현대차 중국 모델로 중국 진출

- 이효리, 현대자동차 중국 모델로 발탁되어 2009년 하반기 중국 진출 예정
- 이효리가 출연하는 CF는 뮤직드라마 형태로 촬영, 방영 예정
 - 이효리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'애니모션' 에서 함께 작업했던 차은택 감독과 박근태 작곡가가 합류하여 또다른 애니모션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
 - CF 방영과 함께 CM송을 한국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 발매하여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 예정
- 이효리는 이미 2007년 한국에서 현대자동차 '투싼' 모델로 활약한 바 있음
 - 당시 이동건과 함께 '사랑한다면 이틀처럼' 이란 뮤직드라마를 촬영, 방영장면을 편집하여

CF영상으로 활용하고 CM송을 싱글로 발매하는 등 복합적인 마케팅 전개

2-5. JYP 엔터테인먼트, 중국 음악 시장 진출 가속

- JYP, 중국판 원더걸스 '시스터즈(Sisters)' 공개
 - 시스터즈(Sisters)는 한국인 멤버 사라와 중국인 멤버 청엔지아오, 황이페이, 페이페이, 멩지아로 구성된 여성 5인조 그룹
 -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가 2008.10월 이미 탄생과 데뷔를 예고
 - 2009년 5월 중순 중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박진영의 'honey'를 부르며 최초 공개
 - 정식 데뷔일정은 미정으로, JYP 소속 가수들의 중국 활동 전략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
- 중국 지사인 JYP 차이나, 중국 현지 방송인 절강 위성 TV와 오디션 프로그램 '춤 출수 록 아름답다' 프로그램의 전략적 제휴 체결
 - 5/21일 첫 방송, 매주 목요일 밤 21시 21분(현지시각) 방송
 - 매 회 15명의 후보가 출전, 춤, 노래 등에서 경합을 벌여 심사와 관중들의 인기투표로 1차 합격 여부를 결정
 - 이후 서바이벌을 통해 결정된 1차 합격 멤버들은 JYP엔터테인먼트에서 트레이닝을 거쳐 정식가수로 데뷔 예정
 - 본 프로그램 이전 2008년 JYP 차이나는 삼성 전자와 함께 '무동음화' 오디션을 진행하여 2008년 하반기에 1회 우승자인 Liu Xin(리우신)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바 있음
- 한국 아이돌 그룹의 중국 시장 진출은 1세대 H.O.T 이후 지속되었으나, 현지에서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여 성공을 거둔 예는 드물
 - 중국인 멤버를 보강한 슈퍼주니어-M이 최근의 성공 사례
 - JYP 엔터테인먼트의 중국에서의 다양한 행보가 향후 중국 음악 시장 진출의 새로운 성공 사례로 남게 될 것인지 주목

2-6. 日 MTV VMAJ 2009에 보아와 빅뱅 출연

- 일 MTV의 VMAJ는 매년 총 17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며 발표 중 세계적인 뮤지션과 일본 내 거물급 음악인의 축하무대가 열림
 - 공연은 이후 전세계 MTV 채널을 통해 방영됨 (2009년 시상식은 6/30일 방영예정)
- 5/30일 열린 일본 MTV VMAJ 2009에서 보아가 미국 진출 앨범 프로듀서인 셀 가렛과 미국 데뷔 싱글 "I did it for love" 공연
- 빅뱅은 시상자로 참석하였고 동방신기는 '주문-Mirotic' 으로 Best Group Video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 실패

※ '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재팬 2009' (Video Music Award Japan)

- 2009년 5/30일 오후 6시 일본 도쿄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스타디움 개최
- 매년 뮤지션들의 '뮤직 비디오'를 두고 R&B, 록, 힙합, 레게, 댄스 등 다양한 음악 영역별 수상자를 뽑는 시상식으로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일본 최대의 음악축제

- 2009년 주요 수상자로는 에그자일 (Best Video of the Year, Best Group Video, Best Choreography Award 3관왕), 아무로 나미에 (Best Female Video 및 Best R & B Video), 케이티 페리 (Best Pop Award) 등이 있음

2-7. 2009 드림 콘서트 개최 일정 확정

- 10/10일,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예정
- '사랑한다 대한민국 2009 Dream Concert'라는 주제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컨셉
- 코리아 뮤직 파워 프로젝트 출범 후 첫 협력 행사로 각 기획사의 대표 스타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
- 올해 15회를 맞는 드림콘서트는 매년 7만명 가량의 청소년이 참석하는 빅 콘서트

3 기술 동향

3-1. 최초로 게임으로 만나는 비틀즈 [The Beatles : Rock Band]



〈자료원 : The Beatles Rockband 홈페이지, 게임영상(좌), 비틀즈 악기형태의 컨트롤러(우)〉

- Microsoft E3 Conference 시연회 <비틀즈: 록 밴드(The Beatles: Rock Band)> 홍보

구분	내용
개발사	하모닉스 뮤직시스템(Harmonix Music System) (기타 히어로즈나 락밴드 등의 음악게임 전문 개발사)
유통사	MTV Games
발매기종	PS3, Xbox360, Wii
발매예정일	북미 09.09.09
홈페이지	www.thebeatlesrockband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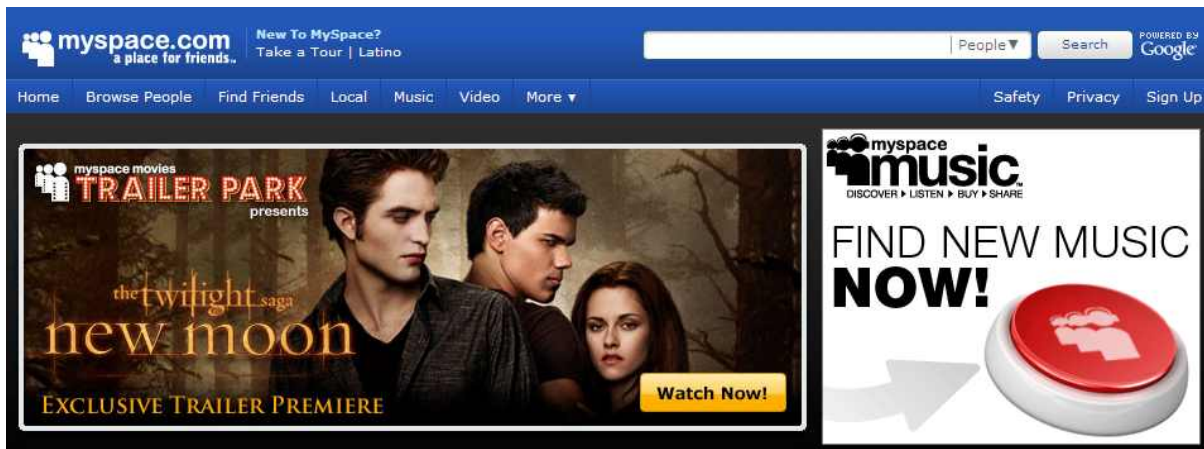
- 비틀즈 음악은 라이선스 문제로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된 적이 없으며 처음으로 게임으로 디지털화 됨
- 락밴드 게임(Rock Band)은 존 레논, 폴 메카트니, 링고 스타가 사용했던 악기를 그대로 본따 만든 다양한 악기 컨트롤러로 진행되는 리듬게임기반이며 실제 멤버들의 CG 캐릭터 보며 진행할 수 있음
- 리버풀 캐번 클럽, 애비로드, 에드 셸리번 쇼 등 비틀즈의 전설적 무대를 그대로 재현
-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앨범 재킷이나 음악 스타일 기반으로 한 연주 장면을 넣을 예정
- 게이머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편곡도 할 수 있으며 녹음작업도 가능
- 비틀즈의 명곡 "All You Need is Love"의 다운로드 수익금 '국경없는 의사회' 기부
- 아티스트를 소재로 한 음악게임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락스타가 되는 경험을 선사하며 음악체험이 확대됨

3-2. 공연산업 인터넷 커뮤니티 아티스트 라이즈(Artist Rise) 오픈 (5/2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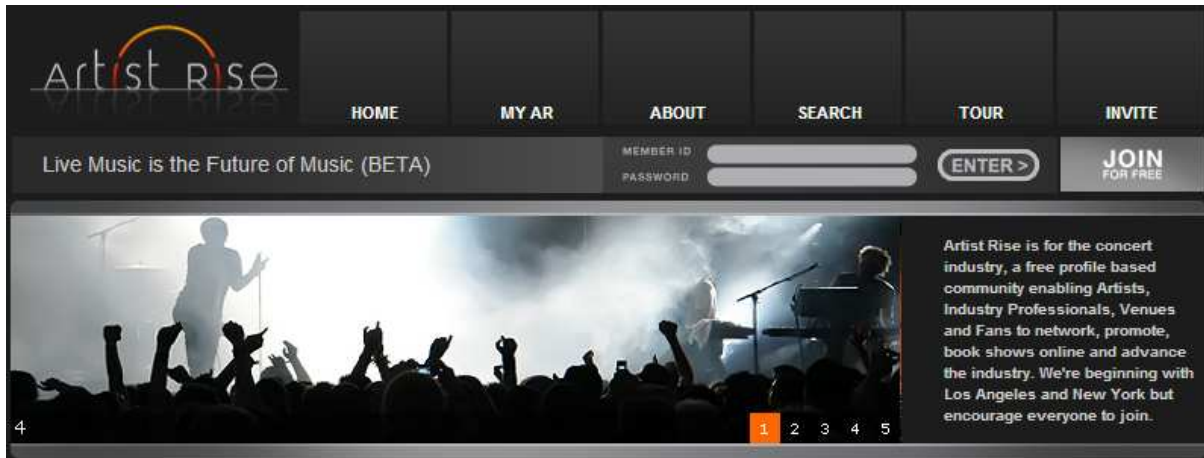
- 아티스트 라이즈는 음악 공연 산업에 초점을 두어 뮤지션, 공연 산업계 종사자, 공연장 및 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수행
 - 가입 회원들이 공연 산업 정보를 직접 업로드
 - 각종 프로필(뮤지션, 공연 산업계 종사자 등)이나 동영상, 메시지, 친목도모, 공연 스케줄 및 예약 시스템 등 정보를 쉽게 공유 가능
 - 파티나 공연 등의 예약을 통해 아티스트의 정보를 얻게 되고, 아티스트는 예약 정보를 이메일로 확인
- 아티스트 라이즈는 기업과의 연계 없이, 사이트를 운영
 - 비슷한 구조로 산업 관계자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스페이스(MySpace)와는 달리 웹사이트 상에 배너 광고를 일체 띄우지 않음

<마이스페이스와 아티스트 라이즈의 비즈니스 모델>

마이스페이스(MySpace)	아티스트 라이즈(Artist Rise)
다양한 기업들간의 연계	기업과의 연계 없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
- 미디어 재벌, 루퍼트 머독이 마이스페이스 지분을 인수하여 뉴스, 동영상등의 콘텐츠를 제공	- 기업 등 후원없이 오로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운영
- 구글의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	- 현재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중심 마케팅 진행
- 소니, 워너뮤직과의 계약을 통해 온라인 음악시장 진출	- 회원가입은 전 세계 누구나 가능



[그림]마이스페이스 홈페이지



[그림]아티스트 라이즈 홈페이지

3-3. 소니뮤직, 유튜브-유니버설 뮤직의 합작 뮤직비디오 사이트 베보(Vevo) 참여

- 유니버설뮤직(UMG)과 유튜브가 합작으로 만드는 뮤직비디오 사이트 ‘베보(Vevo)’에 소니 뮤직 참가 공식 발표
 - 소니 뮤직은 향후 보유한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
- 현재, EMI와 워너뮤직 등도 베보 참여를 검토 중
 - EMI 및 워너뮤직과도 계약할 경우, 베보는 세계 4대 음반사의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출시 전부터 비디오 플레이어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됨

※ 베보(Vevo)

- 뮤직비디오에 최적화된 비디오 플레이어로 음악을 바로 구입할 수 있으며,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등의 본인 ‘홈피’에 퍼가기 가능,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는 음원 수익을, 유튜브는 광고 노출량 확대
- 올 하반기 런칭 예정

4 정책 동향

4-1. 음반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

- 음반구입 시 과세되는 10%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 추진
 - 한나라당 조운선 의원, 상기 내용을 반영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(6/2일)
 - 현행 세법상 부가세 면세대상 : 농수산물, 수돗물, 연탄, 의료행위 및 도서·신문·잡지 등 기초생활필수품,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·용역 등
 - 음반의 경우에는 '도서에 부수한 음반'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'음반' 자체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

4-2. 제2회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(6/4일, 삼성동 인터콘티넨털호텔)

- 정책연구를 위한 학술포럼
- 주 제 :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집중관리 - 현재와 미래
- 참가국 : 한국, 중국, 일본, 홍콩 및 WIPO, IFPI 등 국제단체
- 주최 : 문화체육관광부, 주관 : 저작권위원회
-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의 리처드 오웬스 기술관리국장, 일본음악저작권협회(JASRAC)의 사토시 와타나베 국제부 차장, 중국판권보호중심(CPCC)의 수오 라이준 부주임,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배정환 팀장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
- 포럼에서는 콘텐츠 유통 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직면한 기존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지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, 공유
 - 저작권 신탁단체가 복수화되고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저작권자가 직접 사업자와 계약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저작권 신탁단체의 입지가 좁아짐
 - 신탁단체들이 새로운 역할로 이동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짐
 - 일본은 2009.3월 디지털 유통을 집중적 관리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인 저작권정보자료서버(CDC)를 개설하여, 공동의 작업과 절차를 DB로 제시, 복잡해진 저작권 계약을 간소화
 - 홍콩의 저작권단체인 CASH는 한·중·일의 신탁단체와 공동 라이선스 계약을 하여, 홍콩의 라이선스 단체는 CASH에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도 한·중·일의 콘텐츠를 이용해 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

※ 신탁단체 : 개별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임받아 집중 관리하는 단체. 우리나라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, 일본의 JASRAC, 중국의 CPCC 등

4-3. 방송통신위원회 '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' 마련

- 방송통신콘텐츠 경쟁력 강화 4년간 5000억원 투자
 - 1천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이 결성될 예정

-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활성화,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,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추진 등 3개 분야의 16개 과제로 구성
 - 2012년까지 총 5,090억원(정부 4,431억원, 민간 659억원)을 투입할 예정
-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 전년대비 8.7% 감소
- 전세계 모바일 시장 연평균 30.4% 성장에 비해 국내는 2006년 2조 972억에서 2008년 1조 8792억원으로 3년간 모바일 콘텐츠 시장 연평균 -5.3% 매년 감소세
 - 이는 정보이용료에 비해 데이터통화료 비중이 2배에 달하는 점 때문으로 전체 중 순수 정보이용료는 6430억원
 - 전체 통신콘텐츠 산업은 2005년부터 연평균 15.3% 성장하여 5조 7천억원대 시장 형성
 -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벨소리, 통화연결음 등 모바일 음악과 게임이 절반 이상 차지하며 음악(27.5%)>게임(24.9%)>인포테인먼트(22.7%)>커뮤니티 순의 비중 차지

5 해외 동향

5-1. 스페인 음악 산업, 음악 불법 다운로드 성행으로 시장 규모 감소 위기

- 스페인은 90년대 후반 이후 약 10여 년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음악시장이었으나 점점 시장 규모 축소
- 2008년 CD판매 및 디지털 음원 판매는 총 225백만 유로(314백만 달러)로 전년비 7.8% 하락하였으며,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총 56% 하락
 - 2008년 상반기 엘 칸토 델 로코의 "Personas"(Sony Music) 앨범이 두드러지게 활약한 것을 제외하고 히트 앨범도 감소
- IFPI(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: 국제음반산업연맹)의 <2009년 레코딩 산업 리포트>에 따르면 스페인의 디지털 음악 시장은 "서구에서 가장 높은 저작권 침해율" 때문이라고 밝힘
- 스페인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음악 다운로드 비율은 11%로 세계 평균 21%보다 낮음
 - 스페인의 24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들 중 81%가 P2P를 통해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
 - 도로나 바(bar)에서 음악을 판매하는 실질적 저작권 침해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성행되어 왔으며 현재 스페인의 16세 이상 이용자 중 10%는 이러한 곳을 통하여 불법 음반을 산 경험이 있음
 - 파일 공유 서비스가 널리 퍼져있어 기존 음반 시장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음악 시장까지 약화되고 있는 실정
- 스페인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파일 공유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파블로 소토(Pablo Soto)에게 13만 유로 소송 제기 (5/19일)
- 소토가 개발한 파일공유시스템이 13만 유로 이상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

- 스페인 법률상 무료 콘텐츠 다운로드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무죄로 판결하고 있어 파블로 소토의 변호사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
- 향후 음악 이용자의 불법 음원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법적 규제 절차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스페인 음악 산업의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

5-2. 음원 파일 불법 공유, 반대와 찬성의 격렬한 대립

- 반대 : 록밴드 U2의 매니저 폴 맥기네스(Paul McGuinness), 파일공유 서비스 맹비난
 - 미국 CNET News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일공유 서비스를 강력히 비난 (5/28일)
 - 기존 음악 산업이 스타 마케팅 위주였기 때문에 파일 공유 서비스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는 것임
 - 2008년 1월, 미뎀(Midem) 뮤직 컨퍼런스에서도 ISP(Internet Service Provider)가 충분한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음악가들의 수익을 빼앗아 간다고 주장하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결의문 발표
 - 맥기네스의 발표 이후, 프랑스는 2009.5월 "3진 아웃제"를 도입하였고 미국 레코드 산업 협회 또한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계획을 발표 (2009.12월 예정)
- 찬성 : 그러나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매니저 브라이언 메시지(Brian Message)는 5/5일 NME(New Music Express)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일공유에 찬성
 - P2P를 통한 파일 공유가 합법화되어야하며 음악 공유는 수익구조가 활성화되지 않은 문화 및 음악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주장
 - 라디오헤드는 이미 2007년 발표한 "In Rainbow"를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한바 있음
 - 이런 자유로운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는 그들의 새로운 앨범을 173개국에 퍼뜨림으로써 넓은 고객층을 형성할 수 있었음
- 파일 공유에 대한 의견 충돌은 결국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손실과 다운로드가 음반 판매 등으로 연결되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느끼느냐의 차이
 - 인터넷을 통하여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으면 음악 산업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 반대 입장의 핵심이라면,
 - 파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음반 판매, 공연 수익으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통한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
-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자유로운 활용에 따른 확산 효과를 제거하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

5-3. 소니뮤직, eMusic 에 고전명곡 음원 제공

- 소니뮤직 발매된 지 2년 지난 고전명곡 콘텐츠를 eMusic에게 제공하기로 합의
 - eMusic은 월정액제로 일정 수의 곡을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40만명 이용자 확보
 - 마이클 잭슨, 브루스 스프링스톤, 빌리 조엘 등 인기뮤지션 음원이 제휴에 포함됨
 - 소니뮤직과의 제휴에 따라 eMusic은 월 이용 요금을 인상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곡수를 줄일 예정

- 메이저 음악과 인디 음악을 동시에 제공
 - eMusic은 인디음악 도매사업자로 전세계 3위안에 드는 디지털 음악 판매 사이트였으나 최초로 DRM 프리음악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튠스, 아마존에 밀려 실적 저조했음
 - 1만 3천개 정도의 인디음악 레이블과 더불어 인기 뮤지션의 메이저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인기곡 위주가 아닌 질높은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포지셔닝 하고자 함
 - 기존 음반사들은 eMusic의 낮은 이용료로 제휴에 따른 기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음
 - 현재 월 \$11.99 달러에 30곡 다운받는 정액제와 곡당 44센트 개별 과금제를 병행하고 있어 아이튠스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한 편
 - 모든 음원은 DRM 프리 MP3 포맷으로 제공예정
 - eMusic은 워너뮤직, 유니버설 뮤직, EMI로 제휴확대를 논의 중

별첨 관련 기사 및 자료**1-1. 2009년 5월 4주차 음원 판매 현황**

엠넷 www.mnet.com

멜론 www.melon.com

도시락 www.dosrak.com

벅스 www.bugs.co.kr

2-1. 청소년 보호위원회, 5월 청소년 유해매체로 49곡 판정

아시아경제, 09/05/29, 에픽하이, 업타운 등 청소년유해매체 판정

2-2. 방송 i3사, '저작권 침해 중지' 내용 증명 발송

전자신문, 2009/06/03 지상파 3사, 통합 다운로드 추진

2-3. 음반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, '지적재산권' 수입 증가

연합뉴스, 09/06/01, 음반업계, 레스토랑과 술집 로열티 "돈되네"

Digital Music Report 2009, ifpi

2-4. 이효리, 현대차 중국 모델로 중국 진출

머니투데이, 09/06/03, 이효리, '애니모션' 드림팀과 中 공략한다

마이데일리, 09/06/03, 이효리, '애니모션' 드림팀과 中 진출

한국일보, 09/06/03, 섹시효리, 中홀린다

세계일보, 07/09/01, 車 CF 스타 쓰는 이유는... 판매량 늘고 이미지 높이고

파이낸셜뉴스, 07/03/29, [광고 이야기] 현대자동차 투싼 - 이효리 드라마 같은듯 다른듯

2-5. JYP 엔터테인먼트, 중국 음악 시장 진출 가속

뉴스스, 09/06/03, JYP차이나, 中 저장TV와 오디션 프로그램 공동기획

뉴스엔, 09/06/03, JYP 中 TV 방송사와 전략적 제휴 '중국 진출 본격화'

2-6. 日 MTV VMAJ 2009에 보아와 빅뱅 출연

연합뉴스, 09/05/31, 보아·빅뱅, VMAJ 시상식 화려하게 장식

이데일리, 09/05/30, 보아·빅뱅, 日 MTV 시상식을 빛내다

2-7. 2009 드림 콘서트 개최 일정 확정

아시아경제, 09/06/04, 15주년 '드림콘서트', 10월 10일 확정

3-1. 최초로 게임으로 만나는 비틀즈 [The Beatles : Rock Band]

CNN, 09/06/04, Beatles rock on in video game

Video Game News, 09/06/02, Xbox 360 신작 게임 발표

E3영상, e3.gamespot.com/press-conference/microsoft-e3

3-2. 공연산업 인터넷 커뮤니티 아티스트 라이즈(Artist Rise) 오픈

베타뉴스, 09/4/9, 구글 야후, 음악서비스 놓고 맞붙는다

AVING Korea, 09/4/9, 야후, 음악 전문 사이트 신설

전자신문, 09/4/30, 훌루에 무릎 꿇은 야후, 3위도 못 지켜

08/3/6, 야후, 애플에 밀려 음악 서비스 접을 듯.. 주피터리서치

3-3. 소니뮤직, 유튜브-유니버설 뮤직의 합작 뮤직비디오 사이트 베보(Vevo) 참여

지디넷코리아, 09/06/05, 소니뮤직, 유튜브 연합에 참여

4-1. 음반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

조세일보, 09/06/02, 음반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

세정신문, 09/06/05, 부가세 면제대상에 音盤 포함...음악산업 지원 추진

4-2. 서울저작권포럼 개최 (6/4일,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)

연합뉴스, 09/06/03, 서울저작권포럼 4일 개최

전자신문, 09/06/05, 디지털 유통시대 저작권 집중 관리를

2009 서울저작권포럼 www.copyrightforum.org

4-3. 방송통신위원회 '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' 마련

디지털데일리, 09/06/03, 비싼 패킷 요금에 모바일콘텐츠 시장 역주행

YTN, 09/6/5, 방통위, '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' 마련

5-1. 스페인 음악 산업, 음악 불법 다운로드 성행으로 시장 규모 감소 위기

Typically Spanish, 09/05/19, 13 million Euro claim against Spaniard who designed file sharing programs

5-2. 음원 파일 불법 공유, 반대와 찬성의 격렬한 대립

CNET, 09/05/28, U2 manager: 'Ultimately free is the enemy of good'

Techdirt, 09/05/06, Radiohead's Manager: File Sharing Should Be Legal; It's Great For Music

5-3. 소니뮤직, eMusic 에 고전명곡 음원 제공

CNET News, 09/06/01 Sony's 'classic' catalog comes to eMusic

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팀
과장 김도윤(TEL 02-3153-1286 , doyun.kim@koCCA.kr)